

일 병원 류마티스센터 홈페이지의 인터넷 상담내용 분석

송 경 애* · 백 승 인** · 권 은 하*

An Analysis of Health Counseling in One Rheumatic Center Homepage by the Internet

Sohng, Kyeong Yae* · Paik, Seung In** · Kwon, Eun Ha*

Due to the development in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homepages on the web, which provide medical on health counseling and education. The interne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nd essential in medicine. But little was known about what problems can be counseled and what difficulties are met during the computer mediated counseli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ntent and purpose of health counseling on the web.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st, 2002 to February 28th, 2003, from 199 questioners visited one rheumatic center homepage questionnaire/answering(Q/A) site.

Most of the questioners consulted health problems of their own or their families.

The 51.3% of them were diagnosed medically. Rheumatoid arthritis was the most frequent disease and followed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gout and ankylosing spondylitis.

Most of the questioners needed to know treatment principles, diagnosing process,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clinic.

During the one-year period, the average number of users questioning was 29.4 cases and answering was 44.8 cases.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센터(Rheumatic Center, Kangnam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ove findings suggest that computer mediated health counseling of rheumatic patients may be useful supplement of health education for them. Communication using internet has become popular, but this kind of approach needs a proper guidelin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nurses be familiar with the e-health and e-medicine.

Key concepts : Rheumatic patients, Internet, Health counseling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고속통신망의 설치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없이 정보의 처리와 전달이 신속해지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와 그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PC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상식 정보, 의료상담 등이 제공되었으나 그 후 PC통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오순영과 남기남, 1997 ; 유선미 등, 1997). 정보화에 의한 의료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건강 및 의학관련 사이트(site)는 현재 수천개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안지영, 2000).

대표적 만성질환인 류마티스 질환은 임상증상이 다양하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일정치 않아 환자들은 다른 만성질환자에 비해 더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이은옥 등, 1998). 따라서,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류마티스 건강전문학회가 1999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환자상담을 시작한 이래 현재 류마티스 환자를 위한 의학 정보 홈페이지는 각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와 전문의원을 포함해 약 15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상담 코너를 통해 환자와 의

료진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및 교류는 사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싸며 이용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반복성과 편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량의 정보에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그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통한 의료정보이용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하고자 하는 건강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직접 대면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오순영, 1998 ; 유선미 등 1997).

이에 본 연구자들은 류마티스 환자들이 질병관리와 증상조절을 위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을 기반으로 한 것과 류마티스 건강전문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상담내용을 파악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구성하여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년 동안 C 대학병원 류마티스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질문자들이 상담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상담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용 현황, 질문자의 연령과 성별, 질문 목적 및 질문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중 건강문제상담을 목적으로 한 질문내용은 상담의뢰 환자의 성별, 연령, 질문자와의 관계, 진단명, 그리고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실수와 평균, 그리고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분석대상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99건의 질문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다.

게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386종의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자 1인당 평균 1.94종의 질문을 하고 있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류마티스센터 교육담당 간호사가 하였으며, 전문적인 내용일 경우는 류마티스 전문의나 관련분야 전문의와 의논

〈표 1〉 질문자의 특성 (N=199)

	남성	여성	무응답	계 N(%)
10대	3	3	1	7(3.5)
20대	19	32	4	55(27.6)
30대	9	27	1	37(18.5)
40대	8	10	0	18(9.0)
50대 이상	5	4	0	9(4.5)
무응답			73	73(36.6)
계	44	76	79	199(100.0)

〈표 2〉 질문 목적 (N=199)

구 분	N (%)
건강문제 상담	196(98.5)
전문지식 추구	1(0.5)
기타	2(1.0)
계	199(100.0)

후 응답하였다.

2. 질문자의 특성

질문자 199명 중 연령을 밝힌 126명(질문자의 63%)의 분포는 20대가 4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29.4%, 14.3%를 차지하였다. 질문자의 성별분포는 무응답 6명을 제외하면 남성이 44명, 여성이 76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표 1).

3. 질문목적

질문자 199명 중 건강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질문한 사람이 196(9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지식 추구를 위해 질문한 사람은 1명이었다(표 2).

4. 건강문제 상담 의뢰 환자의 일반적 특성

1) 환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및 질문자와의 관계

환자의 성별은 여자73명(61.9%), 남자 45명(38.1%)로 여자가 더 많았다.

상담을 의뢰한 환자와 질문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환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건강문제를 질문한 경우가 151명(75.9%)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가족이 질문한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의 건강문제를 질문한 경우가 28명(1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배우자가 질문한 경우가 각각 5명(2.5%)이었다. 그 외에 친구의 건강문제를 질문한 경우는 3명(1.5%)이었다(표 3). 그리고 환자의 연령별로 질문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0~20대에서는 본인이 질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가 질문한 경우였다.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이 질문한 경우가 많아 30~40대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환자 본인이 질문자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질문자가 모두 본인이었다.

〈표 3〉 환자와 질문자와의 관계

(N=199)

질문자	환자연령	10~20대	30~40대	50대 이상	무응답	계 N(%)
본인		49	44	8	50	151(75.9)
부모		8	1	0	19	28(14.1)
자녀		1	0	0	4	5(2.5)
배우자		2	2	0	1	5(2.5)
친구		1	0	0	2	3(1.5)
기타		2	0	0	1	3(1.5)
밝히지 않음		0	0	0	4	4(2.0)
계		63	47	8	81	199(100.0)

〈표 4〉 환자의 연령별 진단명

(N=102)

질병명	환자연령	10~20대	30~40대	50대 이상	무응답	계 N(%)
RA		8	14	2	13	37(36.3)
루푸스		5	5	0	8	18(17.7)
OA		0	0	5	8	13(12.7)
강직성 척추염		3	3	0	7	13(12.7)
통풍		2	1	1	1	5(4.9)
베체트병		0	2	0	2	4(3.9)
섬유근통(조직염)		1	0	0	0	1(1.0)
쇼그렌 증후군		0	0	0	1	1(1.0)
경피증		1	0	0	0	1(1.0)
기타		1	1	3	4	9(8.8)
계		21	26	11	44	102(100.0)

*97명은 질병명을 밝히지 않음

2) 환자의 연령별 진단명

상담의뢰 환자 중 무응답 97명을 제외한 102명의 환자 중 진단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37명 (36.3%)으로 가장 많았다(표 4). 다음으로 루푸스, 골관절염과 강직성척추염 순이었으며 통풍,

〈표 5〉 건강문제 상담내용의 유형 (N=386)

상담내용유형	상담시점	진단 후	진단 전	계 N(%)
병역, 직장, 장애 판정		3	93	96(24.9)
질병치료 및 증상조절		66	18	84(21.8)
증상과 진단과정		23	59	82(21.2)
전문병원이나 진료정보		16	23	39(10.1)
진단명에 대한 설명, 정보		13	15	28(7.2)
질병의 원인		7	21	28(7.2)
예후에 대한 질문		15	5	20(5.2)
성생활과 임신 및 출산		5	1	6(1.6)
성형수술 가능 여부 질문		3	0	3(0.8)
계		151	235	386(100.0)

베체트병, 쇼그랜 증후군과 경피증, 섬유근통 등 다양한 환자 상담이 있었다.

상담환자의 연령에 따른 진단명을 살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30~40대에서 가장 많았고, 루푸스는 10~20대, 30~40대의 연령군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골관절염은 50대 이상에서, 강직성척추염은 10~20대, 30~40대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통풍은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5. 질문별 내용분석

건강문제 상담자 199명으로부터 총 386종의 상담내용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표 5).

1) 상담내용

질문자들의 상담내용 386건을 〈표 5〉와 같이 9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병역, 직장, 장애판정에 대한 질문이 96종(2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치료 및 증상조절에 대한 질문이 84종(21.8%), 증상과 진단과정에 관련된 질문이 82종(21.2%)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병원이나 진료정보에 대한 질문이 39종(10.1%), 진단명에 대한 설명 및 정보와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질문이 각각 28종(7.2%)에 달했다. 그 외에도 예후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성생활과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질문이나 성형수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다. 특히 진단을 알고 있으면서 건강문제를 상담한 경우는 151종으로 질병치료와 증상조절에 관련된 질문이 66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을 받기 전에 질문한 경우는 235종으로 직장이나 장애판정 여부, 증상과 진단과정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

2) 질병의 치료에 대한 질문의 세부내용

건강문제 상담내용의 유형 중에서 세부적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와 관련된 질문 85종 중에서 65종은 진단을 받은 후에 질문한 내용이었고, 20종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기 전의 질문내용이었다.

총 85종의 질문내용 중 약물에 대한 질문이 28종(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에 대한 내용이 15종(17.6%), 수술에 관한 질문이 14종(16.5%), 운동에 대한 질문이 13종(15.3%)이었으며, 그 밖에 새로운 치료정보에 관한 질문, 보완 대체요법에 대한 문의, 음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질문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을 받은 후 질문한 경우가 65종으로 진단을 받기 전 20종보다 많았으며, 진단을 받은 후의 질문 내용 역시 약물에 관한 질문이 22종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을 받기 전에는 약물,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 운동에 대한 문의 등을 고르게 질문하였다.

6. 홈페이지 게시판 열람자 수

조사기간 동안 홈페이지 게시판을 열람한 수는 총 14,757회로 1일 평균 40.4회였으며 이 중 질문내용에 대한 열람수는 5,841회(질문전당 29.4회),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수는 8,916회(응답전당 44.8회)로 응답내용 열람회수가 질문내용 열람회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7. 열람빈도가 많았던 질문 및 응답내용

〈표 6〉 질병 치료와 관련된 질문의 세부내용
(N=85)

상담내용	상담시점		계 N(%)
	진단 후	진단 전	
약물에 관한 질문	22	6	28(33.0)
일상생활의 주의점	10	5	15(17.6)
수술에 관한 질문	12	2	14(16.5)
운동에 관한 질문	10	3	13(15.3)
새로운 치료 정보	5	2	7(8.2)
대체요법	4	1	5(5.9)
음식 및 영양관리	2	1	3(3.5)
계	65	20	85(100.0)

〈표 7〉 게시판 열람 횟수 (건당 열람수)

구 분	빈도 (n)
질문내용에 대한 열람	5,841 (29.4)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	8,916 (44.8)
계	14,757 (74.2)

홈페이지 게시판을 열람한 내용 중 가장 많은 열람건수를 차지한 질문내용은 루푸스의 임신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255회를 열람하였고, 그 다음이 루푸스의 증상관리와 문의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루푸스의 치료와 증상에 대해서도 각각 168회, 163회의 열람회수를 보여 루푸스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대한 질문을 열람한 건수는 6회로 가장 적은 열람빈도를 보였다.

응답내용 중 가장 많은 열람회수를 보인 것은 루푸스의 임신시기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루푸스의 치료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대한 응답내용을 열람한 회수도 각각 264회, 206회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IV. 논 의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망(network)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앞으로 의학 분야 역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교환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질문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 조사는 질문자가 게시판을 이용할 때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

만 연령을 밝힌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질문자의 연령은 20대가 55명(43.6%)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친숙한 세대이어야 한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었다(김영보 등, 1998 : 어해용 등, 1996 : 유선미 등, 1997 : 이은옥과 이영숙 2000 : 전승현 등, 1998).

질문자의 성별분포는 선행연구에서 남자가 여자 보다 2.1배(어해용 등, 1996), 1.9배(김영보 등, 1998) 더 많거나, 비슷한 성별 분포(이은옥과 이영숙, 2000)를 보였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1.6배 더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류마티스 질환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호발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질문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한 목적은 대부분(98.5%)이 건강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였다. 건강문제 상담은 본인의 문제를 상담한 경우가 75.9%로 가장 많았지만 가족의 문제를 상담한 경우도 16.6%로 나타나 만성 류마티스 질환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관절염 환자에 대한 가족간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 선행 연구(이은옥과 이영숙, 2000)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상담 환자의 대부분은 진단을 받기 전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이은옥과 이영숙, 2000)와는

다른 결과였다. 진단 전 상태에서 상담을 원하는 내용으로는 증상으로 인한 병역, 직장 생활 여부, 장애 판정여부와 같은 실제 생활과 연관된 질문이 많았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병역이나 장애, 직장과 관련된 건강문제 발생시 기다리지 못할만큼 불안해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젊은 연령 층에서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이은옥과 이영숙, 2000).

진단을 받은 후 상담의 내용은 어해용 등(1996)이나 유선미 등(1997), 이은옥과 이영숙(2000)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담자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설명이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상담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의료 상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건강문제 상담자들의 질병치료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7가지로 구분해 볼 때, 약물에 관한 내용이 33%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의 주의점과 수술, 운동, 새로운 질병 치료정보, 대체요법, 음식 및 영양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병원 진료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문의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우며, 인터넷 전자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질문자 수는 많지 않았으나, 게시판 열람자수를 살펴볼 때, 질문내용에 대한 열람은 전당 29.4 회,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은 전당 44.8회로 각기 25.7회와 32.8회로 나타났던 이은옥과 이영숙(2000)의 연구결과보다 더 높아 인터넷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질문내용보다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 상담은 질문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도 인터넷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좋은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성별, 연령, 진단명을 밝히지 않은 질문자들이 많아 정말 정보가 필요한 신뢰할만한

대상자가 질문했는지를 밝히거나 분석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에는 성별, 연령, 진단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만 질문 내용이 게시판에 게시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게시회수가 많은 내용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따로 올립으로써 상담사이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건강상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소재 C대학병원 류마티스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질문자들이 상담한 199건의 질문 자료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질문내용은 총 386종으로, 질문자 1인당 평균 1.94종의 질문을 하였다. 질문자의 연령분포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질문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부분이 건강문제를 상담할 목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상담의뢰환자의 진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루푸스, 골관절염과 강직성척추염 순이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30~40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3. 상담내용으로는 병역, 직장, 장애판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병치료 및 증상조절, 증상과 진단과정, 전문병원이나 진료정보, 진단명에 대한 설명 및 정보와 질병원인에 대한 질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단

후보다 진단 전에 질문한 것이 더 많았다.

4. 상담내용 유형 중 치료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약물에 대한 질문이 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 수술, 운동에 대한 질문 순으로 나타났다.
5. 홈페이지 게시판 열람수는 총 14,757회로 1일 평균 40.4회였으며, 응답내용 열람회수가 질문내용 열람회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가장 많은 열람회수를 보인 것은 루푸스의 임신시기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그 밖에도 루푸스의 치료와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등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류마티스 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문자가 밝힌 내용만을 분석자료로 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누락된 정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방식을 보완한 후 추후 연구를 통해서 비교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유용성에 대한 연구와 이용자의 만족도나 이해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영보, 홍옥진, 한상환, 최계춘, 박순남, 이상목, 하기준, 라동건 (1998). 인터넷을 이용, 언론 기관과 함께 한 원격의료상담 예의 분석. 대한 의료정보학회지, 4(1), 57-63.
- 안지영 (2000).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의 내용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6(1), 83-96.
- 어해용, 이재환, 김용철, 김수봉, 박은숙 (1996). PC통신 건강상담의 설문내용 분석. 가정의학 회지, 13(4), 310-317.
- 오순영, 남기남 (1997). PC통신을 위한 가정의학 의료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구축. 가정의학회지, 18(9), 943-952.

오순영 (1998). PC통신 의료정보의 유용성. 가정의학회지, 19(12), 1380-1386.

유선미, 박정희, 정유석, 박일환, 이상훈, 박선령 (1997).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내용 분석. 대한의료정보학회지, 3(2), 169-175.

이은옥, 김성윤, 서문자, 한정석, 김명자, 강현숙, 임난영, 김종임 (1998). 관절염환자의 자기관리. 서울 : 신팽출판사.

이은옥, 이영숙 (2000). 인터넷을 이용한 관절염 환자의 건강상담 내용분석-대한류마티스 건강 전문학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류마티스건강 학회지, 7(1), 40-52.

전승현, 이충현, 노세경 (1998).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비뇨기과 건강상담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대한의료정보학회지, 4(1), 65-68.